

※ 다음 각 물음에 가장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국어(한문포함)

1.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집채 만한 파도가 5분 만에 해안가를 삼켜 버렸다.
- ② 지난 몇 년 이래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③ 여기는 학생증 분실시에 학생들의 신고를 받기 위한 곳입니다.
- ④ 사흘간에 걸쳐 국어 시험을 준비하느라 놀기는커녕 자지도 못했다.

2. 맞춤법이 옳은 것은?

- ① 드넓고 살진 옥토에서 해콩의 수확이 한창이다.
- ② 어느 틈엔가 장맛비가 그치고 날이 활짝 개였다.
- ③ 냄비에 밥을 할 때는 밥이 눌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 ④ 산이 가팔라서 힘들었지만 우리는 힘차게 발을 내딛었다.

3.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방 안이 밝아서 독서하기가 좋다. (형용사)
㉡. 그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집을 나섰다. (동사)
- ② ㉠. 밤이 깊어지자 길거리에 아무도 없었다. (대명사)
㉡.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관형사)
- ③ ㉠. 동생네는 첫째가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다. (수사)
㉡. 우리 동네 도서관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쉰다. (관형사)
- ④ ㉠. 제 땀에는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조금 부족했나 봐요. (명사)
㉡. 버스 안에서 땀 생각을 하느라고 정류장을 지나쳤다. (관형사)

4.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 ① 동주는 그 글을 읽고서 생각이 달라졌다.
- ② 밤이 새도록 학생들은 토론을 계속하였다.
- ③ 날씨가 풀리면서 여기저기 물웅덩이가 생겨났다.
- ④ 소금은 물에 잘 녹지만 휘발유에는 잘 녹지 않는다.

5. <자료>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가) ㉠. 나는 친구에게 합격증을 보였다.
㉡. 멀리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나) ㉠. 육식보다는 채식이 건강에 더 좋다.
㉡. 보다 더 높고, 보다 더 멀리 뛰어라.

(다) ㉠. 남의 방을 엿보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 그는 멀리서도 내 얼굴을 쉽게 알아보았다.

(라) ㉠. 그는 늦게나마 손자를 보게 되었다.
㉡. 너는 사람을 뭇로 보고 그런 말을 하니?

- ① (가): ㉠과 ㉡은 어간의 형태는 같으나, ㉠은 사동사이고 ㉡은 피동사이다.
- ② (나): ㉠과 ㉡은 동음이의어로서, ㉠은 조사이고 ㉡은 부사이다.
- ③ (다): ㉠은 파생어의 구성 요소이며, ㉡은 합성어의 구성 요소이다.
- ④ (라): ㉠과 ㉡은 서로 의미는 다르나, 서술어의 자릿수는 같다.

6. 다음 글에 대한 고쳐 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건축 철학이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듯이 정원의 조경도 자연 존중과 조화에서 출발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의 지형이나 자연물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나무를 심거나 연못을 조성하였다. 본래 나무와 연못이 있던 자연 속에 건물을 지어서 ㉠서로가 애초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즉 인공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조경과 건물이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무는 건물에 생기를 가져다주면서 건물의 질을 높여 주었고, 건물은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심지어는 건물의 기둥도 구하기 쉽고 가공이 용이한 나무를 사용하였다. 이는 인간을 자연 속에서 태어나 머물고 그곳으로 돌아갈 존재로 인식하는 ㉣은둔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식의 조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자연과의 조화를 정원 조경의 제1원리로 생각하였다.

- ① ㉠은 의미 전달이 어려우므로 '자연이 건물을 돋보이게 하는'으로 대체해야겠군.
- ② ㉡에는 앞의 문맥으로 볼 때 '나무의'를 추가해야겠군.
- ③ ㉢은 내용의 통일성을 위하여 삭제해야겠군.
- ④ ㉣은 글의 흐름으로 볼 때 '자연 회귀 정신'으로 대체해야겠군.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논증은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 자신이 주장하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논증의 목적은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논증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논거의 제시가 중요한데, 이러한 논거로는 이미 입증된 일반적 원리, 여러 객관적 사례, 권위 있는 전문가의 견해 등이 있다.

논증의 특성은 기술, 인과적 설명 등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 기술은 설명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 현상 또는 사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 평가나 가치관의 개입이 배제된다. 인과적 설명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의 발생 이유나 ㉢ 정확을 설명하는 것으로, 논거를 통하여 주장이 참임을 밝히는 논증과 차이가 있다.

논증 방법에는 연역법, 귀납법, 유추가 있다. 연역법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제가 반드시 참이어야 하며 전제에 오류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귀납법은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례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외가 있을 때는 주장을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렵다. 유추는 두 대상의 유사한 속성을 근거로 하여 주장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어떤 두 대상에 비슷한 ㉣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에서 발견되는 현상이 다른 대상에서도 발견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대상의 속성이 비슷하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대상에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주장을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7. 밑줄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논증의 개념
- ② 논증 방법 간 선호도의 차이
- ③ 논증 방법에 따른 오류의 가능성
- ④ 귀납법에서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

8. ㉠~㉣의 한자 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술: 記述 ② ㉡ 현상: 現象
- ③ ㉢ 정확: 情況 ④ ㉣ 속성: 俗性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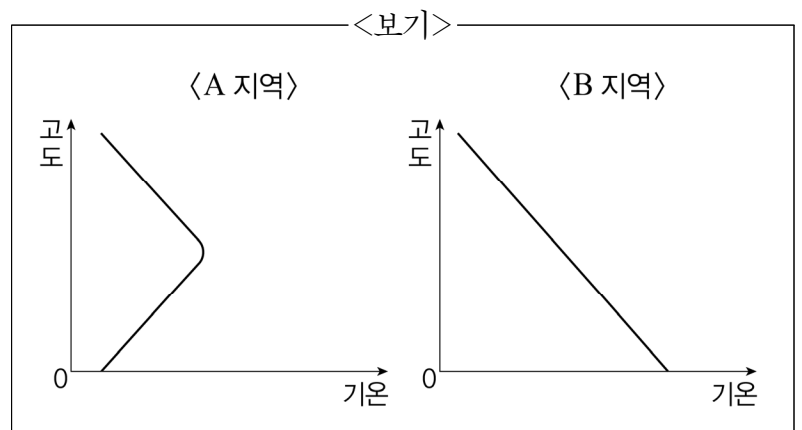
대기 중에서는 지표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는 반대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역전층이 종종 생기는데, 이를 기온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역전층에서는 아래에 있는 찬 공기가 위에 있는 더운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상승할 수 없게 된다.

복사역전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기온역전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이는 복사 냉각*에 의한 기온역전으로 지표 부근의 대기 온도가 위쪽의 대기 온도보다 낮아지면서 발생한다. 복사역전이 일어나면 대기가 안정되어 공기가 상승하거나 하강하지 못한다. 그래서 역전층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오염 물질은 위로 확산되지만, 역전층에 있는 오염 물질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좌우로 퍼진다. 이러한 이유로 공장 굴뚝의 높이가 높을수록 주위 공기와의 혼합이 용이해져서 연기를 확산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 효과는 인정되지만 넓은 지역에 오염 물질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복사역전은 바람이 잔잔하고 맑은 날 밤부터 이른 아침에 걸쳐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해가 떠서 태양이 지면을 가열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복사역전도 서서히 약해지다가 한낮이 되면 사라진다. 복사역전에 의한 대기의 변화는 하루 중 지표 부근의 오염 물질 농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대기가 안정된 이른 아침에는 오염 물질이 쌓여 농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오후에는 오염 물질이 위로 확산되어 농도가 낮게 나타난다.

* 복사 냉각: 열복사에 의해 지표의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

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B 지역 모두 역전층이 형성된다.
- ② A 지역의 지표 부근 대기는 안정된 상태이다.
- ③ B 지역의 지표 부근 대기 오염 물질은 주로 좌우로 퍼진다.
- ④ A, B 지역의 대기 오염 물질 농도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10. 윗글에 근거할 때 복사역전이 발생한 지역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새벽에는 산책이나 실외 운동을 자제한다.
 ㄴ. 도심에서는 햇빛이 강한 오후에 실내 환기를 한다.
 ㄷ. 굴뚝의 높이가 낮은 공장은 연기를 밤중에 배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백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호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 쉼이런가 호노라
 - 길재 -

(나)

꽃잠의 ㉡ 쉼을 꾸어 십이루(十二樓)에 드러가니
 옥황(玉皇)은 우스시되 군선(群仙)이 꾸짖는다
 어즈버 백만 억(百萬億) 창생(蒼生)을 어니 결의 물으리
 하늘히 이지러진 제 므슴 술(術)로 기워낸고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홀 제 엇던 장인이 일워낸고
 옥황끼 슬와 보자 호더니 다 묻호야 오나다
 - 윤선도, 『몽천요』에서 -

(다)

㉢ 쉼에 죄는 님이 신의(信義) 업다 호건마는
 탐탐이 그리올 제 쉼 아니면 어이 보리
 저 님아 쉼이라 말고 즈로즈로 죄시쇼
 - 명옥 -

11. (가)~(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는 모두 대조를 통해 시적 상황을 나타낸다.
 ② (나), (다)는 모두 자연물에 비유하여 주제를 암시한다.
 ③ (가)에서 화자의 행위는 시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나)에서 설의법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④ (가)에는 특정한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으나, (다)에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을 통해 자기실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② ㉠, ㉢을 통해 현실의 외로움을 위로받고 있다.
 ③ ㉡, ㉢을 통해 보고 싶은 대상을 만나 보고 있다.
 ④ ㉠, ㉡, ㉢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합리화하고 있다.

13.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問曰 “二牛에 何者爲勝고?” 하니
 田父不對하고 輟*耕而至하여
 附耳細語曰 “此牛勝이라.” 하다.
 公이 怪之曰 “何以附耳相語오?” 하니
 田父曰 “雖畜物이나 其心은 與人同也라. 此勝則彼劣이니
 使牛聞之면 寧無不平之心乎아?” 하다.
 - 이수광, 『芝峯類說』에서 -
 *輟: 하던 일을 멈추다.

- ① 巧言令色 鮮矣仁
 ② 積功成塔 終亦不崩
 ③ 無道人之短 無說己之長
 ④ 前事之不忘 後事之師也

14. ㉠~㉢에 들어갈 한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無恒産而有恒心者는 惟士爲能이어니와 (㉠)民則
 無恒産이면 因無恒心이라. (㉡)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己니 及陷於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라.
 (㉢)有仁人在位하여 罔民而可爲也리요?
 - 『孟子』에서 -

- | | | | |
|---|---|---|---|
| | ㉠ | ㉡ | ㉢ |
| ① | 若 | 苟 | 焉 |
| ② | 不 | 以 | 如 |
| ③ | 苟 | 若 | 不 |
| ④ | 如 | 焉 | 以 |

15. ㉠~㉢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훈: 요즘 우리 역사나 고전을 소재로 삼은 판타지
 문화 상품이 인기를 끌더군요.
 상섭: 그렇긴 한데, 전통을 앞세우고 저급한 작품을
 만들어 (㉠)하는 경우가 문제 아닌가?
 선우: 그렇지. (㉡)의 노력 없이 빛나는 욕이 없듯
 작가와 제작진의 장인 정신이 중요해.
 정훈: 아직 초기 단계가 아닌가? (㉢)의 시기이니
 전통과 산업을 조화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게.

- | | | | |
|---|------|------|------|
| | ㉠ | ㉡ | ㉢ |
| ① | 羊頭狗肉 | 切磋琢磨 | 暗中摸索 |
| ② | 羊頭狗肉 | 臥薪嘗膽 | 孤立無援 |
| ③ | 朝變夕改 | 切磋琢磨 | 孤立無援 |
| ④ | 朝變夕改 | 臥薪嘗膽 | 暗中摸索 |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손은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앓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한 끼에 두 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아깨비라도 짚에 꿰어 들어왔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庖丁)의 업(業)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 주고 얻어 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 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 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禮)는 몰라도 연습과 산역(山役)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 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 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 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의 일, 남의 일, 궂은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동네일인 경우), 제값이면(경운기와 함께하는 경우) 공치사가 따랐다.

“반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데 인정 없는 대처 읍내 같은 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와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께 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황만근은 황재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병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급신급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서 -

- ① 해학적인 진술에서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
- ② 고조되는 갈등을 전지적 시점에서 표현하고 있다.
- ③ 주인공은 농사, 도축, 연습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장인으로 대우받고 있다.
- ④ 주인공을 대하는 동네 사람들의 태도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줄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쪽 뺨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

17. 위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연 구조의 반복이 리듬감 형성에 기여하고 있어.
- ② 구체적 소재를 통해서 주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했어.
- ③ 공간과 시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 ④ 감탄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시적 효과를 높이고자 했어.

18. 각 연의 대상과 그에 대응하는 봄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연 : 毛 - 華麗 ② 2연 : 眼 - 憤怒
- ③ 3연 : 齒 - 倦怠 ④ 4연 : 鬚 - 躍動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인이 생각을 내어 삭발위승(削髮僞僧)하고 웅과 주점에 들어 밤을 지내더니 홀연 요란하고 화광이 충천한지라. 놀라 담을 넘어 도망하여 생각하니 웅을 버리고 왔는지라. 가슴 두드리며 웅을 부르니 도적이 점점 가까이 오고 어두운 곳에 길을 분변치 못하더니 언덕 밑에 작은 집이 있거늘 들어가 의지하여 도적 지나기를 기다리더라.

㉠ 이때 웅이 잠이 깊었더니 홀연 잡아 내치거늘 놀라 보니 무수한 도적이다. 대경하여 모친을 찾으니 간데없고 도적이 행장을 탈취하여 가거늘 붙들고 울며 왈,

“행장은 다 가져가도 그 속의 죽자는 주고 가라.”

하니 도적이 짐을 풀고 보니 과연 죽자와 전냥이 있거늘 화상만 가지고 행장을 주니 웅이 더욱 애걸 왈,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화상은 주고 가라.”

하며 통곡하니 도적이 그 정성을 보고 왈,

“뉘 화상이관대 그대도록 구는다?”

웅 왈,

“부처 화상이니 오늘 스승을 피시고 주점에 들었더니 스승도 잃고 또 불상을 잃으면 절에도 용납지 못하리니 그대 등은 불길한 것을 주고 가소서.”

도적이 그러히 여겨 주고 가거늘 웅이 사례하고 모친을 부르니 우니 밤이 깊어 길을 모르는지라.

㉡ 이때 부인이 비각에 숨어 앉았더니 완연히 승상이 와 이르되,

“웅이 이 앞으로 지나거늘 부인은 어찌 모르느뇨?”

부인이 놀라 눈을 떠 보니 아무도 없고 침침하여 어딘 줄 모르고 통곡하더니 문득 아이 우는 소리 나거늘 자세히 들으니 완연한 웅이라. 급히 부르니 웅이 모친의 소리를 듣고 반겨 서로 만나매 부인이 유체(流涕) 왈,

“네 어찌 화를 면했느뇨?”

웅이 울며 부친 화상 찾은 사연을 고하니 부인이 또 현몽(現夢) 사연을 이르고 앉았더니 날이 밝거늘 보니 비각이라. 자세히 보니 ‘충신 병부상서 안찰사 조공 아무 만세 불망비’라 하였거늘 모자 비를 붙들고 통곡하다가 웅이 위로 왈,

“부친 비각이 어찌 이곳에 있나니잇고?”

부인 왈,

“비를 보니 곧 위국지경이라. 너의 부친이 병부상서로 있을 때 위왕 두침이 찬역(篡逆)하매 천병이 두침을 죽인 후 삼 년을 크게 가무니 천자 네 부친으로 순안어사를 하이시매 각도에 순행하여 민심을 진정하고 비를 얻어 오곡이 풍성하매 ㉢ 이때 백성이 송덕하는 비를 세우고 축원한다 하더니 이곳에 와 불 줄 어찌 뜻하였으리요.”

하고 슬퍼하더라.

- 「조웅전」에서 -

19.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선한 존재로서 악한 존재에 의해 파괴된 국가와 가문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닌다. 또한 그는 조상의 가호와 백성의 지지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결국 사필귀정의 원리를 구현한다.

- ① 부친의 화상을 지키려는 모습에서 가문에 대한 조웅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군.
- ② 화상을 돌려주는 도적의 모습에서 조웅 가문에 대한 백성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③ 비각에서의 현몽은 선친 조 승상이 조웅 모자를 돌보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④ 모친에게 들은 만세불망비의 유래는 국가에 대한 조웅의 사명감을 환기하겠군.

2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다른 인물이 있는 장소로 공간적 배경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② ㉠과 ㉢은 모두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인과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과 ㉡은 서술자에 의해서, ㉢은 등장인물에 의해서 지정된 한 순간이다.
- ④ ㉠, ㉡, ㉢은 모두 앞에 제시된 장면과 뒤에 제시된 장면이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 준다.